

# 드디어 특허전쟁시대 도래

## 세계적 상품을 우리 손으로

21세기를 10년 남짓 앞둔 오늘날은 최첨단의 기술시대이다. 마침내 인류는 총성없는 제3차세계대전을 맞고야 말았다. 이듬하여 지적재산권전쟁-특허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선진국이니 개발도상국이니 하며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앞세우던 것이 바로 몇 년 전일 뿐인데 그제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바야흐로 국내의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발명과 기술, 디자인, 다시 말해 특허가 인류를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열렸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적인 문제에서까지도 물질특허나 저작권, 즉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강한 발언권을 갖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적재산권을 많이 가지면 선진국,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소위 특허 선진국의 식민지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쟁도 특허로 판가름나고 있다. 자본보다는 특허가 기업성장의 근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얻어진 특허는 그에게 더할 수 없는 명예와 행복을 안겨준다.

특허가 이처럼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전근대인들과는 달리 현대인들은 자꾸만 나아지는 발명품들과 더불어 좀더 편안하게 좀더 편리하게 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작은 생활 필수품에서부터 컴퓨터나 인터넷폰과 같은 첨단제품에 이

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인류의 줄기찬 노력과 순간의 빛나는 생각의 결정인 발명품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발명품들은 계속되는 인류의 노력속에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날들의 경제지표에 대해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인 우리는 국가경제 발전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신흥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경제는 이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더욱 어렵고 힘든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한때 3저(三底)현상에 힘입어 무역흑자를 내기 시작한지 겨우 5년만에 무역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었고, 그동안 주로 저임금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능했던 경제성장의 최대 원동력인 수출경쟁도 고임금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일부 계층의 과소비 행위,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부동산 투기 심리는 생산직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날로 격감시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의한 고물가시대의 도래는 어려운 우리의 경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선진국들의 기술장벽 강화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다져온 성장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배양 없이는 어떤 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국제경쟁력의 확보는 그 나라의 발명, 기술 그리고 디자인 개발능력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개발도상국으로 끝내 잔류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있는 한국

경제, 우리들은 이 난국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좁혀지지 않는 기술격차

자료에 따르면 한·일간 산업구조의 비교·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산업구조가 아직도 일본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며, 그 격차가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야 하는데 산업구조의 낙후로 부가가치의 제고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예컨대, 제품 한 단위로 생산하기 위한 재화의 투입량이 일본에 비해 1.2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이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화가득률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업구조의 취약성은 무역의 효율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외형상 생산액 대비 수출률은 매년 증가했고 일본보다 높았으나 외화가득률은 오히려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기는 많이 팔아도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21.7퍼센트로 일본에 비해 세 배나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재의 대외의존도도 36.7퍼센트에 비해 10배 가량 높아 국내의 생산이나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늘어난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 다소비형인 해외의존형 수요구조에 의해 대외여건 변화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져보면 이처럼 우리 경제가 허약한 체질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들이 전문화와 기술개발에 태만한 데다 정부도 지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첨단기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분야에서 우리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일본의 눈치만 살피야 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이러한 상황은 심각성을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에야 우리 기술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과대학의 신설과 현재의 공과대학 정원을 배로 늘리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 우리 민족과 과학적 전통

우리 조상들의 과학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조선시대의 청동기 제작기술, 가야의 제철기술을 이어받은 신라의 야금과 주조기술은 20톤이나 되는 예밀레종을 만들었으며, 아름답고 우아한 석굴암의 조형기술에는 현대인들도 경탄하고 있다. 특히 고려청자의 우아한 도자기기술과 조선조시대의 철갑선인 거북선의 조선 기술은 아직도 신비에 싸여 있다. 또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뛰어난 발명적 소산으로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진입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00명의 정치가보다는 한 사람의 과학자와 발명가, 한 사람의 뛰어난 기술자와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오늘날 섬마을 일본이, 경제대국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다름 아닌 뛰어난 특허 상품을 개발한 힘이다. 패전국 일본은 전국민이 새 과학·기술 및 디자인의 아이디어 개발에 나섰고, 정부도 이들을 최대한 지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된다. 일본이 했으니깐 우리도 해야 한다.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만 한다.

비록 구호로 시작하여 구호로 막을 내리기는 했지만 우리도 70년대 초 '전국민의 과학화' 및 '과학의 생활화' 운동을 국민운동차원에서 전개했었다. 당시의 국민운동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기만 했다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도 남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생활의 과학화' 및 '발명의 생활화'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고, 국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

기만 하면 20여 년의 공백쯤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 그리하여 발명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있다. 우리에게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두뇌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 발명은 인류문화 발전의 근원

인류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석기시대에서 신 석기시대로, 불을 발견하여 이용할 줄 알면서 철기시대를 연 인류는 이제 원자력의 시대, 컴퓨터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의 지적 개발능력, 즉 발명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기에 발명은 인류문화 발전의 근간이며, 그 결과가 물질문명의 향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질적인 생활수준의 향상만이 인류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물질적 풍요에 힘입어 사람은 정신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갖게되어 이러한 여유를 통해 정신문화도 창조해 오고 있음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발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이벤트요 축제가 아닐 수 없다.

### 당신도 발명가·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은 과학자나 기술자들만의 전매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적절한 소양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스스로의 발상을 싹틔우고 성장시킬 수가 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상품의 개발, 다시 말하면 발명이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러기에 보통사람이 아닌 천재들만이 하는 일로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꿈이 바로 엉뚱한 발상이고 상상력이다.

통계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발명가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소양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스스로의 발상을 싹틔우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 소양은 학습과 노동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달되는 것이다. 그 발명의 과정에는 몇 가지 특징도 있다. 예컨대 세렌디피티(Serendipity)와 문제의식과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의 문제이다.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발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월폴(H. Walpole)의 《The Three Princes of Serendip》라는 소설에서 나온 말로서,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뜻밖의 행운을 찾아낸데서 유래한 말이다.

사실 어떤 발명가나 기술자가 한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씨름하다보면 자질구레한 사건이나 현상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힌트나 영감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목동소년 조셉은 장미넝쿨을 보고 철조망을 발명하여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고, 병공장 공원 루드는 주름치마를 입은 여자친구를 보고 코카콜라병을 개발하여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되었다.

세렌디피티의 예는 수없이 많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같은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명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뚜렷한 의욕, 즉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의욕, 즉 문제의식을 갖고, 올바른 교육 또는 교양과 꾸준한 노력만 계속한다면, 세렌디피티의 행운은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

### 우리 모두 발명가가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이라고 하면 전화·텔레비전·컴퓨터·로봇·로켓·인터페론 등 첨단기술제품을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용하는 수많은 생활필수품들도 모두 발명품이고, 이들 작은 발명은 대부분이 생활 주변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이같은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이뤄진 생활필수품에 속하는 개발품일수록 첨단기술제품보다 기업화 및 수출도 쉽고 시장 또한 넓어 수많은 사람들이 '발명가 기업인'이 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어 15년 동안 독점권리가 주어지듯 작은 아이디어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산업재산권 가운데 실용신안(기존 발명품의 기능을 좀더 편리하게 개선한 고안)이나 의장(기존 발명품의 모양을 좀더 아

름답게 디자인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각각 10년과 8년 동안의 독점권이 주어지고, 등록을 받는 순간 정부가 인정하는 발명가가 된다.

세계적인 발명품으로 손꼽히는 이태리타월은 김필곤씨가 개발했고, 종이음료용기는 신석균씨가 개발했으며, 세줄지퍼는 이행용씨가 개발했는데 이들 모두 현존하는 발명가들이다. 이들의 개발품은 언뜻보면 발명품 같지도 않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작은 발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성공했다.

적더라도 유용하게 쓰이는 발명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발명가이다. 특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나도 좀 색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다. 그것이 곧 발명의 근간이다.

이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 식욕·물욕·성욕에 가까운 절대 본능의 일종인 것이다. 그러므로 발명을 하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쾌감을 맛보게 된다.

발명이 사람이 사람을 젊어지게 하고, 또 장수를 누리게 하는 근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옛 성인이 "인간은 새로움에 대한 욕구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꿈을 가지고 새로운 자기의 실현을 위해 그 '과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그리고 용감하게 '도전'해 보는 창조자, 바로 이러

한 인간이 발명가적 인간이다. 한번이 아니고 열 번, 백 번, 천 번 혼신의 힘을 집중할 때 에디슨이 말하는 1퍼센트의 영감이나 세렌디피티는 당신에게도 나타난다. 생각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잠든 재능을 두들겨 깨우는 것은 자신뿐이다. 운명도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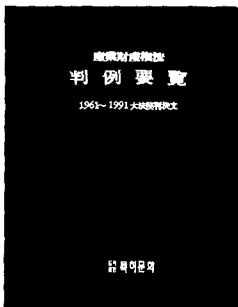
아무리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발명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발휘할 수 없다. 같고 닳지 않으면 녹슬어버리고 만다. 특히 사람의 두뇌는 옳게 쓰면 쓸수록 좋아지나, 쓰지 않거나 아껴 쓰면 아껴쓸수록 나빠진다.

강조해 두건대, 참으로 값있는 것은 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알을 품고 있는 거위이다. 그 황금 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내부에 숨어있는 창조적 발명심이다. 따라서 누구나 창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곧 서류에 뒤떨어지거나, 그 와중에 휘말려 다시는 떠오를 수가 없게 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승자가 되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삶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것을 향해 좀더 개선하고 개발하며 발명하는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혁신이 없는, 창조가 없는 삶은 노 없는 배와 같다. 발명력은 누구나의 몸에 살아 숨쉬는 소중한 재산이며, 정지하고 있는 그 무엇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만능의 동력이다. <♣> <王然中記>

신간안내

##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



도서출판 특허문화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집인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特許上告事件은 물론이고 民·刑事 등의 판례 전문·핵심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法律條文別, 內容의 性格別, 判決宣告日字 순으로 편집되어 있어 이용하기 쉽고, 나날이 늘어나는 知的財産權 紛爭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이며,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법령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엮어져 있다. (도서출판 특허문화(565-0205)(4×6배판, 470면, 20,000원)